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02호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16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II.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17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507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313억 1천 6백만원 대비 194억 7천 8백만원(14.8%)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72억 4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 1,334억 1천 8백만원, 보조금 1억 3천 2백만원임.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안)	2016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150,793,194	131,315,572	19,477,622	14.8
일반회계	150,793,194	131,315,572	19,477,622	14.8
세외수입	17,243,194	1,893,461	15,349,733	810.7
경상적세외수입	1,963,387	1,840,262	123,125	6.7
임시적세외수입	15,279,807	53,199	15,226,608	28,622.9
지방교부세	133,418,000	121,682,770	11,735,230	9.6
보조금	132,000	156,000	△24,000	△15.4
국고보조금 등	132,000	156,000	△24,000	△15.4

○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직무발명 관련 시유특허권 실시권 처분료,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와 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을 비롯한 재산임대수입과 기타사용료를 합한 19억 1천 1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전용카드 캐쉬백 적립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을 합한 기타수입으로 152억 8천만원임.
- 지방교부세 수입은 분권교부세 폐지 관련 재원보전과 소방안전 교부세를 포함해 1,334억 1천 8백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 3천 2백만원임.

나. 세 출

○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66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152억 9천 3백만원에 비해 31.1% 증액되었음.

-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7,265억 2천 9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01억 1천 6백만원임.
- 일반회계 사업비는 3,693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4억 5천 5백만원(39.4%)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2,022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9.5% 증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01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7억 2천 7백만원(55%)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이 7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8.8%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6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43억 1천 7백만원(100.4%) 증액되었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안)	2016년도	2016년대비 증감	증감율	
총 계	806,645	615,293	191,352	31.1	
일반회계	소 계	726,529	437,450	289,079	66.1
	행정운영경비	1,100	1,095	5	0.5
	재무활동	202,691	20,852	104,455	39.4
	사업비	369,307	264,852	104,455	39.4
	예비비	154,431	151,017	2,414	1.6
도시개발특별회계	소 계	80,116	177,843	△97,727	△55.0
	재무활동	71,500	173,544	△102,044	△58.8
	예비비	8,616	4,299	4,317	100.4

- 세출예산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인건비 6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로 편성된 것을 비롯해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지원 1억 8천 8백만원,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20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음.
- 이 밖에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서 209억 7천 7백만원, 일반예비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각각 24억 1천 4백만원, 43억 1천 7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상환 1,821억 9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41억 1천 6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869억 9천 4백만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1억원,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15억 5천 2백만원, 지방채상환 13억 7천 5백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3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913억 5천 2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 분야별 주요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정현안 기획조정 】 …………… 8억 1천 4백만원

- 시정계획 수립조정 5억 5천 3백만원
-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1억 7천만원

【 시정의 효율성 제고 】 …… 950억 8천 4백만원

- 민간위탁제도 운영 2억 1천 4백만원
- 시정시책연구용역 14억 7백만원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억 8천 9백만원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억 1천 2백만원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708억 6천 7백만원
- 서울연구원 출연 219억 4천 8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2억원

【 시정평가 기능 강화 】 … 16억 5천 9백만원

- 기관별 성과 평가 9억 9천 5백만원
-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억 9백만원
-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3억 9천 8백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확대 】 … 5억 1천 1백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억 4백만원
-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2억 2천 3백만원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8천 3백만원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 … 45억 7천만원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5억 9천 8백만원
-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39억 7천 2백만원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 … 14억 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등 지원 5억 1천 2백만원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7천 2백만원
- 지역 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 5억 7천 4백만원
-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7천 1백만원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25억원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 … 38억 9천 7백만원

- 성과주의예산운영(재정정보) 1억 6천 7백만원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1억 9천 8백만원

【 예비비 및 재무활동 】 … 4,243억 7천 7백만원

- 예비비(도시개발특별회계포함) 1,620억 4천 7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상환 1,908억 3천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 715억원

【 효율적 재정운영 】 … 2,529억 6천 1백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522억 9백만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7백만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억 8천 4백만원
- 재정통계 분석관리 8천 2백만원
-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8천만원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 7억 5천 4백만원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4억 2천만원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2억 3천 7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 및 정책연구 지원 7천 8 만원

【 국제교류협력 추진 】 … 20억 5천 8백만원

- 자매도시 교류 4억 8백만원
- 지구촌나눔한마당 4억 9천 8백만원
-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억 8천 8백만원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억 5천 7백만원
- 도시교류협력행사 2억 2천만원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20억원

【 해외도시협력추진 】 … 55억 9천 6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2억 6천 3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3억 5천 9백만원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10억 7백만원
-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6억 5천만원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위수탁 21억 6천 7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0억 8천 4백만원

2.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재정투융자기금의 2017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2조 5,314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5,759억 9천 7백만원 대비 1.7%(445억 9천 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감채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천 1백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3,050억 5천 7백만원 대비 99.8%(3,043억 3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8천 6백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191억 3천 2백만원 대비 27.4%(52억 4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7천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47억 4천 8백만원 대비 15.2%(7억 2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천 3백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15억 3천 8백만원 대비 46.5%(7억 1천 5백만원) 감소하였음.
- 2017년 새로 설치되는 지역개발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천만원임.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종류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재정투융자기금	2,575,997	234,094	278,689	△44,595	2,411,084	
감 채 기 금	305,057	4,744	309,080	△304,336	721	
남북교류협력기금	19,132	334	5,580	△5,246	13,886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4,748	2,599	1,878	721	5,470
	국제계정	1,538	2,027	2,742	△715	823
지역개발기금	0	5,694	4	5,690	5,690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세입·세출 총괄

가. 2017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 규모

- 2017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예산대비 2조 1,487억(7.8%) 증액된 29조 6,52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조 6,227억원, 특별회계가 9조 297억원임.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구 분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 감	
			예산액	증감비율(%)
총계규모	29조 6,525억원	27조 5,038억원	2조 1,487억원	7.8%
일반회계	20조 6,227억원	19조 1,694억원	1조 4,534억원	7.6%
특별회계	9조 297억원	8조 3,344억원	6,953억원	8.3%

- 이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3조 4,770억¹⁾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 1,755억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전출을 포함한 법정 의무경비(8조 5,419억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2017년도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17조 6,336억원 수준임.

<2017년도 서울시 법정 의무경비 차감 내역>

법정 의무경비 : 8조 5,419억원	
일반회계 : 7조 5,182억원	특별회계 : 1조 237억원
- 자치구 지원 : 4조 741억원	- 자치구 지원 : 383억원
- 교육청 지원 : 2조 8,054억원	- 채 무 상 환 : 9,555억원
- 채 무 상 환 : 2,046억원	- 반 환 금 : 299억원
- 기금전출금 등 : 4,341억원	

- 서울시는 2017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 ‘일자리’, ‘복지’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부문별 편성 내역>

(단위 : 억 원, %)

분 야	2017		2016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296,525	100	275,038	100	21,487	7.8
회계간전출입	34,770	11.7	32,688	11.9	2,082	6.4

1) 일반회계 → 특별회계 : 2조 9,680억원, 특별회계간 전출 : 5,090억원

순 계	261,755	88.3	242,350	88.1	19,405	8.0
사회복지	86,910	33.2	83,452	34.4	3,458	4.1
도로·교통	17,451	6.7	19,354	8.0	△1,903	△9.8
공원·환경	16,095	6.1	18,284	7.5	△2,189	△12.0
도시안전	14,077	5.4	12,715	5.2	1,362	10.7
문화관광	6,000	2.3	6,319	2.6	△319	△5.0
산업경제	5,336	2.0	4,800	2.0	536	11.2
도시계획 및 주택장비	5,281	2.0	3,273	1.4	2,008	61.4
일반행정	7,770	3.0	6,472	2.7	1,298	20.1
예 비 비	1,824	0.7	1,775	0.7	50	2.8
교육청 지원	28,054	10.7	24,839	10.2	3,215	12.9
자치구 지원	41,124	15.7	37,914	15.6	3,210	8.5
행정운영경비	16,770	6.4	16,052	6.6	718	4.5
재 무 활 동	15,062	5.8	7,101	2.9	7,961	112.1

나. 세입

○ 2017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507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313억 1천 6백만원 대비 194억 7천 8백만원(14.8%)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72억 4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 1,334억 1천 8백만원, 보조금 1억 3천 2백만원임.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 6천 3백만원으로 직무발명관련 사유특허 처분수입 5천 3백만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수입 18억 5천 8백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7천만원(3.1%) 증가하였고,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5천 3백만원이 기타수입으로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152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억 2천 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까지 내부거래 항목으로 편성되던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기타수입 항목으로 조정되어 수치상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된 착시를 보이고 있음.
 - 이 밖에, 보통교부세 1,041억 6천 9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4천 9백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7억 3천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서울시는 작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세입 처리 기준이 없어 내부거래 항목에서 이를 편성해 왔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의 변경된 기준²⁾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항목에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또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의 경우 2015년 결산기준으로 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수입의 일부를 대관료로 잘못 세입처리하였고, 2016년에는 수입이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에 미편성 하였음.
-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입규모를 적절한 항목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요구됨.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2017(안)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세입예산	150,793	131,316	362,396	435,483	310,027

다. 세출

-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66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152억 9천 3백만원에 비해 31.1% 증액되었음.
-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7,265억 2천 9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01억 1천 6백만원임.
 - 일반회계 사업비는 3,693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4억 5천 5백만원 (39.4%)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2,022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9.5% 증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01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7억 2천 7백만

2)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원(55%)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이 7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8.8%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6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1천 7백만원 (100.4%)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인건비 6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로 편성된 것을 비롯해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지원 1억 8천 8백만원,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20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음.
- 이 밖에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서 209억 7천 7백만원, 일반예비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각각 24억 1천 4백만원, 43억 1천 7백만원, 재정 투융자기금상환 1,821억 9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41억 1천 6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869억 9천 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 서비스 시민 평가 1억원,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15억 5천 2백만원, 지방채상환 13억 7천 5백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3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913억 5천 2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라. 도시개발 특별회계

- 「도시개발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각종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됨.
- 현재 서울시는 도시개발의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 관리부서를 달리 해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의 도시활성화과에서, 세출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예상치 못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은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 977억 2천 7백만원이 감소된 801억 1천 6백만원을 전출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2. 2017년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³⁾

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PI)은 ‘2017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신흥국 경제의 반등에 힘입어 2017년 세계경제가 올해 2.9%보다 약간 높은 3.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⁴⁾.

3)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소와 각종 언론보도 참고

4) IMF는 2016년 1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통해 3.6% 성장을 예상함.

- 미국은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나 가처분소득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주택 투자를 위시한 민간 투자 감소세에 따라 1.8% 정도 성장이 예상됨.
- 일본은 물가하락과 기업실적 악화로 소비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엔화강세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0.3%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유로존은 브렉시트 등의 영향에 따라 수출경기회복 지연과 내수 개선 둔화가 예상되지만 독일과 프랑스 선거에 따라 인위적인 경기부양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과 신흥국의 경우 상당기간 둔화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 부채 리스크와 과잉 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작은 6.5%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KEPI 세계경제전망>

(단위 : %)

	2016년		2017년
	2016년 5월	2016년 10월	
세 계 경 제	3.0	2.9	3.4
미 국	2.1	1.5	1.8
유 로	1.6	1.6	1.4
영 국	1.9	1.9	1.0
일 본	0.2	0.2	0.3
중 국	6.5	6.6	6.5
러시아	-1.2	-0.6	0.5
인 도	7.6	7.6	7.8

자료 : KEPI, 2017년 세계경제 전망

- 다소 긍정적인 대외 경제여건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계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EU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 차지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결합해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교역감소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감소로 세계경제가 깊은 장기침체로 빠질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주요 경제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이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둔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나.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3.0% 수준으로, 사실상 3%대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상 처음 3년 연속 2% 성장이 예측됨.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달러화 강세와 엔화 강보합세에 따른 환율 여건 개선 등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시장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등에 따라 대다수 기관이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기관별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	3.0%	한국은행	2.8%
국회(예산정책처)	2.7%	교보증권	2.7%
현대경제연구원	2.6%	한국금융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2%	LG경제연구원	2.2%

- 한국은행이 세계 교역 회복세와 이에 따른 수출 경기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은 브렉시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로 수출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가계부채와 인구고령화, 설비투자 부진,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이 밖에도 내년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첫 해라는 점에서 내수의 활력 저하를 초래해 소비 부진을 더욱 부추기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와 고용 부진을 낳으며, 기업의 생산 위축 및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 그리고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자칫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를 제기하기도 함.

다. 서울경제 전망 및 시사점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유가 회복 등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 주의의 강화 우려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각종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임.
- 최근 2~3년간 정부의 부동산 회복 정책이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면서 시의 재정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지출 확대에 나설 여유가 있었으나,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에 따라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음.
- 서울의 경우 특히, 구조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의 문제와 높은 주거 비용 문제 등으로 내수침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침체는 재정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도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문제 특히 청년층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며, 자영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 성장능력 배양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침체를 막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 부족에도 각종 복지지출이나 경제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효율적인 재정지출 구조를 통해 재정건전화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신규사업 검토

-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4개 세부사업에 8,066억 4천 5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22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의 0.28%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사업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17년 예산(안)	소관부서
기 획 조 정 실(64개 사업)	(×132,000) 806,644,586	
신 규 사 업(3개 사업)	(×60,000) 2,248,000	
1.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운영비	(×60,000) 60,000	대외협력담당관
2.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88,000	국제교류담당관
3.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2,000,000	국제교류담당관

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운영비

<예산서 p.392>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도입된 “지역생활권”정책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인력운영비>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인력운영비	-	(×60,000) 60,000	(×60,000) 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53,000 ■ 4대 보험료 등 7,000

-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시범생활권을 비롯해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생활권 등 4개 분류에 모두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음.
-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생활권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사무관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2017년부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구분해 집행하고자 함.

나.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사업별설명서 p.284>

- 국내 개최 국제행사 지원 사업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제고와 관광객 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회의를 선정해 시의 주요정책 홍보와 국제교류 촉진의 기회로 삼기 위해 2004년 시행 이후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하지만, 2014년 개정된 「지방개정법」이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관련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7년 재개하고자 하는 것임.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	188,000	18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8,000 ■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00

- 시는 그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 및 회의 가운데 국제회의심

의회 사전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연간 약 10여건의 각종 국제행사에 환영 오만찬, 문화공연, 시정홍보 자료 배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최근 3년간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추진 실적>

구 분	예산집행		추진실적(건)
	예산(천원)	집행액(천원)	
2014년도	173,500	167,927	9건
2015년도	173,500	166,582	12건
2016년도	사업비 미편성		

- 서울시의 경우 이미 관광산업 특히 MICE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체육국 주도로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MICE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글로벌 마케팅을 비롯한 해외 홍보 활동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중복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제행사 지원 유사사업의 예산(안)>

사업명	2017 예산(안)	추진부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7,435,000천원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MICE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	1,367,500천원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글로벌 마케팅	14,100,000천원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다.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예산서 p.406>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매년 각종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재해구조 등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연간 약 35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
- 하지만,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3천 8백만원에 불과해 기금고갈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출하고자 하는 것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전출금	-	2,000,000	2,000,000	■ 기금전출금 2,000,000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을 포함해 서울시가 운용중인 대부분의 각종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기금고갈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외에 별다른 수입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과 기금일몰제를 통한 기금의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기금의 폐지와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주요사업 검토

가.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94>

-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사무를 위한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 가운데 367개를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1조 430억원⁵⁾ 이상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

<민간위탁제도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민간위탁제도 운영	279,800	214,400	△65,400	■ 사무관리비 29,900 ■ 시책추진업무추진 4,500 ■ 민간위탁금 180,000

- 최근 3년 동안 새롭게 추진된 민간위탁 사무만 67개에 이를 정도로 매년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위탁의 효과성이나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상황임.
- 의회는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무의 확대에 대한 통제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

5) 2016년 예산기준 1,043,139,655천원

한 시의회 동의, 재계약·재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 의무화, 회계감사 의무화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집행부 내부 통제 장치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실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최근 3년간 32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으나 전체의 5% 미만인 5건에 대해서만 부적정 판단을 내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엄정한 평가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구 분	심의안건	심의결과
총 계	322건	적정 251, 조건부 적정 58, 부적정 5, 보류 8
2014년	106건	적정 89, 조건부 적정 15, 보류 2
2015년	109건	적정 79, 조건부 적정 23, 부적정 5, 보류 2
2016년	107건	적정 83, 조건부 적정 20, 보류 4

- 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직결된다고 판단해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약 2억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내실화를 포함한 엄격한 내부 통제장치를 활성화 해야 하며, ‘민간위탁 사무 일몰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84>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는 2016년부터 시립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음⁶⁾.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49,889,507	70,866,562	20,977,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69,817,382 ■ 기본경비 1,049,180

6) 교직원(교수, 시직원, 조교) 인건비는 2012년부터 통합인건비로 재무과에 일괄 편성됨.

- 2017년도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09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공사비에서 200억원이 증액되고, 기숙사 증축공사비 75억 7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주된 증가 사유임.

<201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안)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합 계	49,889,507	70,866,562	20,977,055
시설물 유지관리	6,871,043	5,901,396	△969,674
교육지원환경개선	2,900,887	3,808,477	907,590
음악관 건립	4,176,845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10,000,000	30,000,000	20,000,000
중앙로 재조성 사업	824,512	-	
직장어린이집 설치	76,631	1,420,800	1,344,169
기숙사 증축공사	-	7,507,000	7,507,000
세운상가 공간활용	-	69,950	69,950
교내 청소,경비 유지관리	1,293,525	1,450,573	157,048
대학회계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보전사업	2,266,032	-	
재무행정 및 행정장비 구매	608,520	499,594	△108,926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502,066	3,370,773	△131,293
도서관 운영	3,627,599	3,789,132	161,533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195,000	229,700	34,700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365,000	3,816,000	451,000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지원	257,680	286,094	28,414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2,125,542	2,119,925	△5,617
강사료 지급	4,932,071	4,593,695	△338,376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79,800	902,300	22,500
서울도시포럼 운영	50,000	-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670,000	52,000	△618,000
기관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1,036,754	1,049,180	12,426

1)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의 경우 부족한 교사 확보율 개선을 비롯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최초로 구상된 이후 201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을 약 6%로 토공사가 진행중임.
- 구)음악관과 실내체육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연면적 20,782㎡)규모로 건립되는 해당 건물은 국제회의장, 실내체육관, 시민문화도서관, 시민창작지원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임.
- 총 사업비는 489억원 규모이며 2017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비와 각종 시설비를 포함한 3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건 설 비	48,900	1,950	10,000	30,000	6,950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50	1,950			
시설비	44,458		9,400	28,400	6,658
감리비	2,400		565	1,560	275
시설부대비	92		35	40	17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증액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차질없는 공사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시립대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과 같이 총동창회를 포함한 시립대 구성원과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공사비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7).

2) 기숙사 증축공사

- 본 사업은 부족한 기숙사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를 증설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

7) 시립대학교는 2014년 9월 최초 투자심사 당시 대학발전기금을 포함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에 따라 총 사업비 가운데 35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기숙사 증축공사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건설비	15,949	517		7,507	7,925
기본 및 실시설계비	517	517			
시설비	14,200			6,908	7,292
감리비	1,200			584	616
시설부대비	32			15	17

- 이미 완료된 설계에 따라 2017년 4월 공사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경우 2018년 8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 159억 4천 9백만원 가운데 공사 첫 해인 2017년에는 75억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현재 시립대학에는 생활관과 국제학사를 포함해 7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7.7%로 주요 경쟁대학과 비교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

<기숙사 수용률 비교>

구 분	서울시립대	대학전체평균	서울지역평균	국공립대평균
수용률	7.7%	19.2%	14.1%	20.5%

-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기숙사는 지하1층, 지상6층(연면적 4,942㎡)에 300명 수용이 가능한 100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공사가 끝날 경우 현재 7.7%에 불과한 시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0.3%로 상승할 예정임.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가운데 기숙사 수용률 기준으로 제시된 1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숙사의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지표와 별도로 서울지역의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립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다만, 최근 각 대학들이 기숙사 수용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일부 마찰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선행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3) 세운상가 공간활용

- 본 사업은 낡고 노후된 세운상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 재상사업에 시립대가 참여해달라는 시의 요구에 따라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공간 및 창업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과학 선도대학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3개 상가 6개소를 리모델링해 모두 447.31m²의 면적에 강의실과 공용전시공간, 창업공간, 동아리 연습실, 시민참여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공사비는 올해 역사도심재생과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며, 시립대는 2017년 약 7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각종 실업실습기자재와 사무용 집기, 전산장비를 취득할 예정임.

<세운상가 공간활용>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세운상가 공간활용	-	69,950	69,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취득 17,550 ■ 사무기기취득 7,500 ■ 사무집기취득 9,490 ■ 전산장비취득 35,410

- 부수고 다시 짓는 일반적인 도시 재개발 방식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에 해당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에 동의할 수 있음.
- 하지만, 대학 소재지와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한 시가 청년층 창업지원을 위해 곳곳에 조성하고 있는 창업카페 등의 창업시설과의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책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시설유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4)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의 효과

-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해소와 이를 통한 고등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반값등록금 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나고 있음.
- 최근 '0원 등록금' 문제가 거론되면서 반값 등록금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립대 구성원들도 시설투자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일부 언론에서는 반값 등록금 시행에 따라 대형강의 수 증가, 기숙사 입주 인원 정체, 전임교수 연구비 정체 등 시설투자를 비롯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반값등록금 시행 전후 예산총액을 비교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약 800억원 규모로 큰 변화는 없었으며, 개별 예산 항목별로도 특별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음.

〈반값등록금 시행전후 시립대 예산총액 변화〉 (단위 : 천원)

	반값등록금 시행이전			반값등록금 시행이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89,153,711	102,440,715	80,292,782	84,021,086	79,303,068	75,934,731
일반회계	43,545,018	51,147,858	30,479,956	48,625,451	44,150,737	43,986,061
기성회계	45,608,693	51,292,857	49,812,826	35,395,635	35,152,331	31,948,670

- 예산 총액이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대학교 구성원이 교육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느끼는 것은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시립대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감소와 기숙사 수용률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이 지난 몇 년간 개선되지 못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실제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각종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재정 지표와 중앙일보 평가순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⁸⁾.
- 반면, 국내 주요 국공립대학과의 재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시립대가 2012년 이후 0.25%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같은 기간 부산대학교와 경북대는 각각 20.8%와 13.5%의 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평균교육비의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 당초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내걸었던 고른 배움의 기회 제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립대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등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능동적인 계획 마련이 담보되어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별설명서 p.315〉

- 서울시는 글로벌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유치와 세계 주요

8)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2016), 등록금 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도시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1,153,100	1,006,900	△146,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65,000 ■ 행사운영비 80,000 ■ 국외업무여비 72,000 ■ 업무추진비 6,800 ■ 국제부담금 783,100

- 시는 이미 유치한 국제기구들의 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와 국제회의 참가를 비롯한 각종 활동의 경비로 10억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시의 노력에 따라 현재 서울에는 모두 26개의 각종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 기구는 시가 직접 유치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임.
- 국제기구 유치 노력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제기구 유치 과정에서 임대료, 인건비,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당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기획조정실이 편성하고 있는 12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예산 7억 3천 8백만원외에도 시는 각 사업부서별로 연관된 국제기구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임대료와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연간 약 40억원에 달함.

<국제기구 지원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2017예산(안)	지원내역	소관부서
유니세프 등 12개 기구	737,500	임대료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1,135,987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정보화기획담당관
아시아-유럽간 국제연구망	71,922	임대료, 운영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ICLEI	609,000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후변화대응과
시티넷 본부	650,000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		인재개발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776,300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사회적경제과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109,000	임대료	사회적경제과
계	4,089,709		

- 세계도시로서의 위상강화라는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국제기구 유치와 이로 인한 각종 기대 효과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함.

라. 예산절약성과금지 운영

<사업별설명서 p.205>

- 예산절약성과금은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제안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것에 기여한 시민과 업무개선이나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당초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일괄해 운영해 왔으나, 2016년부터 양자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음.

<예산절약성과금지 운영>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예산절약 성과금지 운영	198,000	198,000	-	■ 포상금	198,000

- 창의적인 업무개선이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의 성과금을 지급해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자체심사위원회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복수의 검증 절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 적절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과거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일부 사례의 경우 성과금 지급에 앞서 상당기간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과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성과금의 지급 대상자가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정을 고려해 예산성과금 지급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잘못 지급된 성과금의 환수제도를 포함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됨.
- 아울러, 사업효과성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대비 예산집행률이 50%~60% 수준으로 저조한 사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적절한 예산의 규모를 정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예산절약성과금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당초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당초예산대비)
2012	300,000	213,000	212,336	664	70.8%
2013	500,000	500,000	216,005	289,995	43.2%
2014	400,000	400,000	259,000	141,000	64.8%
2015	300,000	300,000	174,032	125,968	58.0%
2016.10	198,000	198,000	111,000	87,000	56.1%

마. 대의회/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사업별설명서 p.53, p.193>

- 시는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시의회 협력업무 강화사업을, 시와 관련한 주요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상시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시정발전을 목적으로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대의회/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	80,893	90,543	9,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70,000 ■ 시책업무추진비 20,543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88,000	77,500	△10,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24,000 ■ 공공운영비 2,000 ■ 시책업무추진비 51,500

- 두 사업이 대상을 달리할 뿐 그 성격이 사실상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관련 자료의 인쇄비와 같은 사무관리비와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지출되는 유사한 구조임.
- 다만, 대의회 협력업무의 경우 시의회와의 소통이나 협력강화에 주로 치중하는 한편, 대국회 협력업무의 경우 각종 예산 확보나 자치관련 법령 개선건의 등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이는 차이가 있음.
- 사업의 성격상 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대국회 협력업무 사업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약 17% 감해 편성하였음.
-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협력업무 추진 방식에 조심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의회와 국회와의 협력강화와 이를 통한 행정목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사업별설명서 p.169>

- 전국 17개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304,000	51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운영비 3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 출연금 207,900

- 2017년에는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30억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2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지역진흥재단의 경우 현재까지 재단 출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현원과 재정력 지수 등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라 출연하고 있음.
- 지난 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행정자치부에 관련 법령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의원발의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음.
- 다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의 출연금 출연 시기는 근거법령이 통과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시점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사. 예비비

<예산서 p.394>

-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으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시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20조 6,227억원의 약 0.74%인 1,534억 3천만원(목적 예비비 200억원 포함)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예비비>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예비비	151,016,982	153,430,876	2,413,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예비비 133,430,876 ■ 목적예비비 20,000,000

- 특별히 예비비 지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도록 하였음.
- 매년 서울시는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일정액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사건사고에 따른 안전예산과 메르스 사태 대응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도 했음.

<최근 3년간 예비비 승인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	299	56	1,051	18	379
일반회계	26	279	47	976	15	336
특별회계	2	20	9	75	3	43
주요사유	긴급안전예산 등		메르스 대응 등		각종 소송 판결금 등	

- 최근에는 각종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예산을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11월 18일 현재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잔액은 927억원인데 반해 신청사 공사 배상금 가지급(649억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 부족분(1,078억원) 등으로 승인잔액 부족 상황이 예측되고 있음.
- 시가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상황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수 경비의 삭감과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부족은 당초 시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부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예비비를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것에 주된 사유가 있음.
- 각종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충분히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소송 판결금을 비롯해 충분히 예상되는 여러 예산소요에 대한 예산편성 노력을 통해 예비비 부족과 같은 급박한 재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IV. 기금검토보고

1. 기금총괄검토

- 서울시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5개기금(21계정)을 모두 합해

서 2조 3,939억 8천 4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1조 7,690억 3천 7백만원보다 35.3%(6,249억 4천 7백만원) 증가된 규모임.

- 기획조정실이 소관하는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등 5개기금 6개 계정임.
- 재정투융자기금의 2017년도 말 기준 기금구성 현재액은 2조 5,314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5,759억 9천 7백만원 대비 1.73%(445억 9천 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채기금의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7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9.76%(3,043억 3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종류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재정투융자기금	2,575,997	234,094	278,689	△44,595	2,531,402
감채기금	305,057	4,744	309,080	△304,336	721
남북교류협력기금	19,132	334	5,580	△5,246	13,88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748	2,599	1,878	721	5,47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1,538	2,027	2,742	△715	823
지역개발기금	0	5,694	4	5,690	5,690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42%(52억 4천 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9%(7억 2천 1백만원) 증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5%(7억 1천 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신설되는 지역개발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천만원임.

2. 재정투융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⁹⁾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9)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특별회계 및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조 5,314억 2백만원임.

<2017년도 재정투용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현재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2,575,997,000	234,094,000	278,689,200	△44,595,200	2,531,401,800

- 조성된 기금은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자원 부족이 발생한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용자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6년도 재정투용자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9,879억 2천 3백만원임.
- 상세 수입내역은 용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900억 8천 1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6,542억 9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995억 3천 7백만원, 예수금 1,230억원, 이자수입 210억 1천 3백만원임.
- 전체 수입액은 전년보다 3,588억 3천 6백만원(57.0%) 증가하였으며, 예탁금원금 회수에서 3,724억 7천 2백만원, 예수금 수입 826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용자금 회수수입 108억원, 예치금 회수 730억 8천 3백만원, 이자수입이 123억 4천 6백만원이 전년도 수입과 비교해 감소하였음.

<2017년도 재정투용자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987,923,000	629,087,000	358,836,000
용자금회수(이자포함)	90,081,000	100,881,000	△10,800,000
예탁금원금회수	654,292,000	281,840,000	372,452,000
예치금회수	99,537,000	172,620,000	△73,083,000
예수금	123,000,000	40,387,000	82,613,000
이자수입	21,013,000	33,359,000	△12,346,000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987,923,000	629,087,000	358,836,000
기본경비	2,000	2,000	0
예탁금	120,000,000	309,905,000	△189,905,000
예치금	589,233,800	106,275,467	482,958,333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278,687,200	212,904,533	65,782,667

-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규모는 9,879억 2천 3백만원으로 예탁금 1,200억원, 예치금 5,892억 3천 4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786억 8천 7백만원 등임.
- 예탁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용자지원 1,200억원이며, 예수금원리금상환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비롯한 9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모두 2,643억 9천 1백만원의 원금상환과 여기에서 발생한 142억 9천 6백만원의 이자상환임.
-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3,588억 3천 6백만원(57.0%)이 증가한 가운데 예치금이 4,829억 5천 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657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이 1,899억 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의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감소의 주된 원인은 개별 기금들의 여유자금 부족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전반에 걸쳐서 기금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규모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이자수입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한 기금의 운용수익 극대화 대책마련이 요구됨.

<최근 5년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629,087,000	842,404,776	994,833,977	1,193,020,424	1,239,585,866
공공예금이자수입	4,678,000	6,318,805	6,487,940	9,805,560	4,654,613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481,000	5,258,031	7,489,011	19,852,199	38,311,23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7,400,000	100,000,000	150,000,000	579,900,000	130,000,000
예치금회수	172,620,000	247,990,437	135,085,066	208,935,629	177,469,050
예수금수입	40,387,000	185,270,206	167,182,199	139,900,000	572,205,994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81,840,000	268,895,000	494,921,000	193,192,037	187,020,000
예탁금이자수입	28,681,000	28,672,297	33,668,761	41,434,999	129,924,978

3. 감채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운용되고 있음.

<2017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 [㉠]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수입 [㉢]	지출 [㉣]	증감 [㉤]	
305,056,524	4,744,271	309,080,275	△304,336,004	720,520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정액인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등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천 1백만원임.
-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됨.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감채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3,098억 1백만원임.
- 수입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수입인 전입금 47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3,050억 5천 7백만원, 이자수입 1천 4백만원임.
- 전년대비 1,422억 2천 2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예치금 회수 수입임.

<2017년도 감채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309,800,795	167,578,456	142,222,339
전 입 금	4,730,275	158,092,560	△153,362,285
예치금회수	305,056,524	9,299,898	295,756,626
이자수입	13,996	185,998	△172,002

- 2017년도 감채기금의 지출규모는 3,098억 1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2,053억원과 이자 47억 3천만원을 포함한 예수금원리금상환 2,100억 3천만원과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 990억원, 예치금 7억 2천 1백만원, 기본경비 5천만원임.

<2017년도 감채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09,800,795	167,578,456	142,222,339
기본경비	50,000	30,000	20,000
예치금	720,520	9,455,896	△8,735,376
예수금원리금상환	205,300,000	150,000,000	55,300,000

- 전년도 보다 지출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규모가 1,500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으로 고유한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정에 따라 이자수입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사정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운용수익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4.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설치되었음.

-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8천 6백만원임.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 [㉠]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 [㉢] + [㉠]
	수입 [㉢]	지출 [㉣]	증감 [㉤]	
19,131,994	333,873	5,579,500	△5,245,627	13,886,367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116억 4천 1백만원이며, 수입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33억 4천 1백만원과 예치금회수수입 79억 6천 6백만원, 이자수입 3억 3천 4백만원이며, 지출 상세내역은 비용자성 사업비 55억원,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30억 6천 1백만원, 기본경비 8천만원 등임.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 지출액의 상세내역은 인도적 지원사업, 경제분야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서 49억 4천 5백만원이며, 연구용역비 4억원, 국외여비 5천만원, 일반운영비 5백만원 등임.
- 이는 전년도 지출액 114억 7천 7백만원과 비교해 2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임.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11,640,970	11,476,792	164,178	합 계	11,640,970	11,476,792	164,178
예탁금 원금회수	3,341,200	3,341,200	0	사업비	5,500,000	5,500,000	0
				기본경비	79,500	79,500	0
예치금 회수	7,965,897	7,735,748	230,149	예탁금	3,000,000	3,000,000	0
이자수입	333,873	399,844	△65,971	예치금	3,061,470	2,897,292	164,178

- 다만, 2010년 5·24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곤란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지출액의 대부분은 예탁금이나 예치금 형태로

다시 환원되고 있으며 실제 고유목적 사업비의 지출규모는 연 2~3억원 수준에 불과함.

다. 주요사업 검토

- 시는 2017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시는 2016년 환정보전과 보건의료 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해 21억원을,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 자전거 지원 및 남북경협사업 등 경제협력사업 3억 5천만원, 경평추구와 서울시향 평양공연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사업 18억원, 통일관련 학술회의를 비롯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6억 9천 5백만원, 서울-평양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연구용역을 위해 4억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사무관리비에 5천 5백만원,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음.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역>

년도	2017년도(안)	2016	2014
사업명	인도적지원사업(21억원) 경제협력사업(3.5억원) 사회문화교류사업(18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6.95억원) 연구개발 사업(4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1억원) 민간인국외여비(5천만원) 사무관리비(5백만원)	인도적지원사업(24억원) 경제협력사업(3.5억원) 사회문화교류사업(18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6.95억원) 연구개발 사업(2억원) 민간인국외여비(5천만원) 사무관리비(5백만원)	인도적지원사업(24억원) 경제협력사업(3.5억원) 사회문화교류사업(18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7억원) 연구개발 사업(2억원) 민간인국외여비(5천만원)
예산액	55억원	55억원	55억원

- 다만, 2010년 5·24 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5년 동안 실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시의 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됨.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2016년 (11월 현재)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611,262	324,782	197,525	177,213	231,959

<2016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집행내역>

시 기	사 업 명	집행액 (백만원)	관계기관/단체
'16.5	○ (통일부 주관)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 일시/장소 : 5.27(금)~5.29(일)/광화문광장 - 서울·평양 비교전시,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등 홍보	19	통일부
'16.6	○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원 - 일시/장소 : 6.9(목)/연세대김대중도서관 - 서울 통일포럼 운영(분단국 도시교류 경험이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	76	(사)김대중평화센터
'16.1~	○ 서울 평양간 도시계획 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 - 용역기간 : '15.7.13~'18.7.12/서울연구원 - 남북교류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제와 대응 등	173	서울시
'16.8~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 선정단체 :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등 8개 단체 - 교육기간 : '16. 8 ~ 11 / 교육대상 : 서울시민	94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등 8개 단체
'16.8~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 지원 구 : 송파구, 성동구, 노원구 - 사업기간 : '16. 8 ~ 11 / 교육대상 : 서울시민	60	송파구 등 3개구
'16.9~	○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남북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 기간/장소 : '16.9 ~ 12/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 남북관계 및 도시교류 제도화 등 남북 도시교류 활성화 전략	30	(사)한반도평화포럼
'16.10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지원 - 일시/장소 : 10.3(월)/63컨벤션센터 - 「서울-평양-베이징-도쿄 도시교류와 동북아 평화」 토론회 등	83	(재)노무현재단
계		535	

- 실제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당초 예산대비 10% 미만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점에서 2016년도에 특별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예년과 유사한 선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매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사업구조 재편이나 기금 폐지와 일반사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경우에 따라서 안정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 직접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통해 고유목적사업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5.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7년도말 조성액은 54억 7천만원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 [㉠]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
	수입 [㉡]	지출 [㉢]	증감 [㉣]	
4,748,375	2,599,352	1,878,000	721,352	5,469,727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2017년도 수입·지출계획은 73억 4천 8백만원임.
- 수입 상세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47억 4천 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천 9백만원임.
- 상세 지출내역은 우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포함한 6개 비용자성목적사업비 18억 7천 5백만원, 예치금 54억 7천만원, 기타 기본경비 3백만원 등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7,347,727	6,906,816	440,911	합계	7,347,727	6,906,816	440,911
전입금	2,500,000	3,000,000	△500,000	사업비	1,875,000	2,757,088	△882,088
예치금회수	4,748,375	3,800,816	947,559	기본경비	3,000	3,000	0
이자수입	99,352	106,000	△6,648	예치금	5,469,727	4,146,728	1,322,999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기금 설치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8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은 이후 이자수입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금 고갈위기에 있었음.

- 이에 따라 시는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정한 2018년까지 기금 건전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모두 100억원을 추가적으로 출연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0억원을 계획대로 출연한 바 있음.
- 당초 시는 2017년에 40억원의 기금 출연을 계획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의 규모를 계획보다 작은 25억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됨.
- 별다른 수입구조가 없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구조상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출연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에 절대적일 수 밖에 없고, 현재와 같이 연간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비될 경우 2,3년 뒤에는 기금 고갈 우려 상황이 반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안정적인 일반회계 출연과 별도의 수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 주요사업 검토

- 2016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세부사업은 6건이며, 사업비 총액은 18억 7천 5백만원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7(안)	2016년 예산 집행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집행율
계	1,875,000	2,757,088	2,091,045	666,043	75.84%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000	53,000	53,000	-	100%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80,000	545,000	35,000	93.97%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		500,000	-	500,000	0%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2016년 지역상생포럼)	350,000	200,000	98,152	101,848	49.08%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400,000	350,000	323,994	26,006	92.57%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000	1,000,000	1,000,000	-	100%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 여행상품 개발운영	50,000	50,000	50,000	-	100%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000	24,088	20,900	3,188	86.77%

- 2016년과 비교해 사업의 성과가 없거나 기금사업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과 같은 2개 사업을

중단하였고,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경우 과거 지역상생포럼 운영 사업에 권역별 민관협력 세미나와 지역교류 활성화 홍보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확대하였음.

(1)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 본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와 구호 지원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000	1,000,000	-	■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000

- 시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2호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재해·재난 피해 복구지원>

구 분	지원내역	지원규모
2014년	- 강원·경북 폭설피해 지원	강원(3억원), 경북(1억원)
	- 세월호 사고	물품지원(4천만원)
2015년	- 가뭄피해 복구지원	강원(3억원), 경북(0.5억원), 인천(0.5억원)
	- 충남 가뭄피해 복구지원	충남(2억원)
2016년	- 경북지역 지진피해 복구지원	경북(3억원)
	- 태풍 차바 피해 복구지원	울산(2억원), 제주·부산·전남·경북·경남(각 1억원)

-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지원을 위해 5억원, 2011년 강원도 폭설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과 재해의 조기복구를 위한 선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음.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의 경우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구호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 않으며 실제 2007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4년은 관련 예산 집행이 없었음.
- 시는 그 동안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당 보통 1억원에서 최

대 3억원까지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기상이변이나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시의 위상이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매년 예산집행의 담보할 수 없는 예산을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산 합리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음.

(2)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 본 사업은 타 자치단체와의 각종 협약이 확대되는 기조에 따라 협약 체결이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해 각종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상생포럼을 개최하거나, 지역상생 교류 박람회 개최, 권역별 순회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200,000	350,000	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120,000 ■ 행사운영비 230,000

- 시는 2014년 지역상생포럼을 구축한 이후 2015년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민간협력 세미나와 지역상생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우호교류협력 체결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의 경우 4개의 하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권역별 순회 세미나와 정례총회,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등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세미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와 같은 사업이 당초 시가 목적으로 한 각종 교류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쉽게 평가하기 곤란하며, 상생포럼 정례총회와 연계된 지역 상생교류 박람회의 경우에도 사실상 1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올해 지역상생포럼과 박람회 운영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추진 성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가 맺고 있는 각종 우호 교류 사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정책 교환과 참여활성화를 통한 효과성있는 신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음.

6.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천 3백만원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 ^(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e)=(d)+(a)}
	수입 ^(b)	지출 ^(c)	증감 ^(d)	
1,538,187	2,026,560	2,741,781	△715,221	822,966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연수 및 문화 등의 교류를 등의 사업을 위해 2017년도 35억 6천 5백만원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입 상세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1천 2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2천 6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 8백만원임.
- 상세 지출내역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한 9개 비용자성목적사업비 27억 3천 7백만원, 예치금 8억 2천 3백만원, 기타 기본경비 5백만원 등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3,564,747	3,408,301	156,446	합 계	3,564,747	3,408,301	156,446
전입금	2,000,000	-	2,000,000	사업비	2,736,781	2,733,067	3,714
예탁금 원금회수	512,960	2,288,000	△1,776,000	기본경비	5,000	5,000	-
예치금회수	1,026,187	1,065,301	△39,114	예치금	822,966	670,234	152,732
이자수입	26,560	46,000	△19,440				

- 2005년 기금 조성이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출연금은 2016년까지 모두 160 억원이지만 매년 소모성 비용자성 사업비 수행을 위해 20여원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기금 고갈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시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에는 20억원의 출연을 통해 기금 고갈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용자성사업비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결과 2017년 말에는 예치금 잔액이 8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20억원 수준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도 부족한 수준임.
-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출연금 추가 전입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며, 기금 존속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증해 기금의 폐지 혹은 통합과 일반예산사업으로의 대대적인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주요사업 검토

- 시는 2017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9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27억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7년 (안)	2016년 집행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2,736,781	2,733,067	1,236,683	1,496,384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40,000	35,000	-	0	0%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 학위과정	690,388	688,847	508,880	179,967	73.87%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	50,000	신규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 센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000	50,000	-	50,000	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000	1,000,000	116,010	883,990	11.60%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98,293	476,120	350,165	125,955	73.55%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779,000	304,000	146,680	157,320	48.25%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100	69,100	51,598	17,502	74.67%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000	90,000	47,350	42,650	52.61%
몽골 국립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사업	-	20,000	16,000	4,000	80%

(1)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한 불용소방차를 수요가 있는 해외도시들에 지원하고 외국소방관 초청교육 훈련을 통해 해외도시의 안전인프라 구축과 국내 소방시스템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중임.
- 시는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운용 후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소방차를 몽골과 필리핀, 페루 등 지원을 원하는 해외도시에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소방차의 10대의 운송비와 관련 소방대원 초청 교육훈련비를 포함해 지난해에 이어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000	9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운영비 3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 외빈초청여비 20,000

- 실제 시는 이미 페루 찬차마요시에 불용소방차량을 양여했으며, 몽골(10명)과 필리핀(10명), 태국(7명) 소방관을 초청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
- 또한 현재 불용소방차 양여 요청이 있는 필리핀과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등에도 불용소방차량 양여를 추진하고 있음.
- 사용연한이 도래한 불용소방차를 활용해 소방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조치는 물품관리 효율성이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해당국 소방대원에 대한 초청 교육을 통해 우수한 국내 소방시스템을 홍보해 국내의 우수한 소방산업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상대 외국 지방정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최초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2)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서울시의 세무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전파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도시에 체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전수해 시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개척분야인 세무정보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추진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시와 우호도시 협력체결시 세무정보시스템을 우

선사업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해당사업에 관한 컨설팅과 연구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지방세 정보화 컨설팅 지원	-	50,000	5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현재 시는 몽골과 스리랑카를 비롯한 10개 국가¹⁰⁾를 세무정보시스템 진출 타깃도시로 정하고 2020년까지 다양한 공공과 민간재원을 활용한 컨설팅과 시범사업, 해당 국가들에 대한 초청연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이와 같은 장기계획의 가장 초기 단계로 민간기업과 협력한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의 해외진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민간기업 공모를 통해 타당성 조사 연구비의 50% 정도를 민간이 직접 부담하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관심있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 최근 시는 세무정보시스템뿐 아니라 각종 선진 시정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민간과의 협력사업이 자칫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전 단계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됨.

6. 지역개발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7년 신규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
- 지역개발기금의 주요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공예금 이자, 용자금 이자 수익을 비롯한 기금관리수입 등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천만원임.

10)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케냐, 카메룬,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 ^㉑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㉒=(㉑)+(㉓)
	수입 ^㉓	지출 ^㉔	증감 ^㉕	
0	5,693,614	3,500	5,690,114	5,690,114

- 이렇게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서울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공기업 사업비로 활용됨.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지역개발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56억 4천 5백만원임.
- 수입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전입금인 기타수입 56억 3천 1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4천 9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 4백만원임.

<2017년도 감채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합계	5,644,614	0	5,644,614
그외수입(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631,089	0	5,631,089
예탁금 이자수입	49,000	0	49,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3,525	0	13,525

-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지출규모는 56억 9천 4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9억원, 여유자금 예치금 7억 9천만원, 기본경비 4백만원임.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출 계획			
항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계	5,693,614	0	5,693,614
기본경비	3,500	0	3,500
예치금	790,114	0	790,114
예탁금(재정투융자기금)	4,900,000	0	4,900,000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존의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었음.
- 다만, 지역공기업에 대한 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의 용도에 맞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당분간 지역개발사업의 예비적 용도로 기존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선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수입을 비롯한 기금의 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